

인공지능(AI)으로 돼지 임신 여부 판정한다

-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14일 스마트 양돈 기업 방문
- 임신 판정·체형 진단 자동화 기술 시연 참관 및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조 원장 “산업체와 협력해 스마트 양돈 기술 보급 확대할 것”

※2026. 4. 14.(화) 10:00~10: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엠트리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4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스마트 양돈 전문기업 (주)엠트리센을 방문해 공동 개발 중인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소통 시간을 가졌다.

조 원장은 이날 국립축산과학원이 (주)엠트리센에 기술이전한 ‘돼지 임신 판정 자동화 기술’과 ‘모든 정밀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이전 제품 시연회를 참관한 조 원장은 “자동으로 임신을 판정하고 체형을 진단하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 정밀한 돼지 사양관리가 가능함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를 통해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돈농가에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원장은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겠다.”라며 “기술이전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해 스마트 양돈 기술이 농가에 빠르게 보급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주)엠트리센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양돈 사양관리 자동화 해결책(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기술이전 한 ‘모든 정밀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과 초음파 기반 ‘돼지 임신 판정 자동화 기술’을 제품화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양돈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축산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적용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올해 10개 농가를 선정해 ‘모든 정밀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을 보급하고, 45개 농가에 ‘돼지 임신 판정 자동화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붙임. 양돈과 기술이전 산업체(주)엠트리센) 현장방문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1-580-3440)
		담당자	연구사	최요한 (041-580-345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

양돈과 기술이전 산업체(주)엠트리센) 현장 방문

방문 개요

- 일시: 2026. 4. 14.(화), 오전 10:00~10:40
- 장소: (주)엠트리센 본사 *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1306호
- 참석자: 원장님, 양돈과장, 최요한 연구사, 엠트리센 대표 등
- 내용: 임신 판정 및 체형 진단 제품개발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주요 내용

- 기술이전 제품(임신 판정, 체형 관리 자동화) 개발 현황 점검
 - 인공지능 기반 태낭 초음파 내 태낭 탐지 및 임신 여부 판정 기술
 - 인공지능 기반 모든 체형 지표 등각, 등지방두께, 체중 진단 및 사료 공급 기술
- 기술 제품 생산공정 점검 및 개발 제품 구동 시연 참관
- 산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 강화 방안 협의

세부 일정

- 일시: 2026. 4. 14.(화), 오전 10:00~10:40

시간	분	주요내용
08:30~10:00	90	◦ 이 동(천안 → 서울 금천구)
10:00~10:40	40	◦ 임신 판정 및 체형 진단 제품 작동 시연 및 간담회 * 개발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
10:40~13:20	160	◦ 이 동(서울 → 본원)